

#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정일 (동국대 트랜스미디어세계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동시대인이 된다는 것

작가 최명희는 1997년 『혼불』로 제11회 단재상을 받았다. 단재상은 단재 신채호(申采浩) 선생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한길사가 제정한 상(賞)이다. 최명희는 1980년 4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17년간 혼신을 다하여 이 작품을 썼다. 만년필로 육필 원고지 1만 2천 장을 써 내려갔다. 『혼불』은 일제강점기인 1930~40년대 전라도 남원에 사는 한 양반 가문의 몰락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순결한 모국어의 복원하고자 했다. 작가는 수상 소감을 이 짧은 한 마디로 대신했다.

“제가 정말 쓰고 싶었던 것.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 한다면,

그것은 어둠이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 살았어도 희망을 품었던 민초(民草)의 삶에 주목한 작가의 말이다. 작가는 시대의 어둠에 시선을 고정시키며,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지각한다. 이탈리아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Georgio Agamben)도 작가 최명희와 비슷한 말을 한다. 아감벤은 「동시대인은 무엇인가?」란 글에서 개인이 자신의 시대와 갖는 독특한 관계에 주목한다. 그는 동시대인을 자신이 사는 ‘시대의 어둠’을 보는 자들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렇게 부연한다.

“진정으로 동시대적인 사람, 그의 시대에 진정 속해 있는 사람은 시대와 일치하지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이런 점에서 비시대적이다. 그러나 바로 이 단절과 시대착오 때문에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의 시대를 더 잘 보고 파악할 수 있다.”

최명희나 조르조 아감벤의 말들이 크리스천들을 향한 질책처럼 들린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히듯, 빛 역시 제 역할을 못하면 어둠보다 더 어두워질 것이다. 어둠보다 더 어두운 빛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 보자. 비기독교 사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존 스토틀(John Stott) 목사는 『현대사회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에서 이렇게 조언한다.

“교회는 세상에 나와 하나님께 속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세 지향성’을 부인하고 증거하고 섬기도록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이다.”

소금은 음식 안에 스며들어야 하고, 빛은 어둠 속을 비추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촛불집회, 청문회, 탄핵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권력자나 그를 돕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란 신념이 없이 사회적, 정치적 일을 행할 때,

얼마나 모순된 존재 — 교양 있지만 비열하고 합리적 이지만 불합리하고, 정의롭지만 이기적인 — 가 될 수 있는가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

### 광화문에서 「서시」를 읽다

운동주의 「서시」(序詩)를 읽다보면 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느낀다. 시인은 겨우 27세에 항일운동 혐의로 체포되어 후쿠오카 감옥에서 죽었다. 시인의 시에는 일제 강점기를 산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성찰이 담겨 있다. 시인은 자신의 시대에 시선을 고정하며, 그가 속한 시대를 읽어 낸다. 「서시」는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시인은 「서시」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와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인은 첫 행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이 신념을 고수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에 따르면, 우리는 고백사회(confessional society)에서 살고 있다. 한국에서도 수백만 명이 페이스북, 카카오토티,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상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일상, 생각과 느낌을 공개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사회적 연결망이 소통이 아니라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유희로 변질되곤 한다.

부끄러움(shame)은 우리가 잃어버린 너무나도 소중한 감성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살펴보면 부끄러움을 모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실감한다. 실세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여서 촛불을 들었다. 그다음엔 ‘즉각 퇴진’을 외치며 행진을 하였다. 요즘 시민들은 정치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한국 사회가 탄핵이란 하나의 뉴스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존재이다.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자신의 틀을 깨는 것은 기적이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전 세대와는 엄청나게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매주 광화문에 모여 촛불을 드는 시민들이 100만을 넘었다. 이들이 분노한 이유는 지도자가 정책과 인사에 자신만의 관점과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관점과 기준이 없으면 자신의 시대를 분별하지도, 확고히 응시하지도 못한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은 모두의 바람이지만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다. 해체주의자로 알려진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도 부끄러움이란 주제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그는 오직 인간만이 발가벗음에 수치를 느낀다고 상기시킨다. 데리다는 목욕 후 발가벗은 채 고양이의 시선을 받으며 묻는다. “나는 누구지?” 데리다는 고양이에게 관찰되는 자신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진리는 선포되지만 동시에 관찰된다’는 걸 수시로 체험한다. 우리는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오늘날에도 우상숭배는 여전히, 주로 잘못된 신념을 믿는 형태로 나타난다. 생

각해 보라,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마음으로 고개를 숙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상숭배는 우리가 무의식중에 수시로 저지르는 죄이다. 우상숭배에 빠질수록 부끄러움을 견디는 힘은 더욱 제한된다.

### 한 줄의 힘

구글(Google)의 창립 모토는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이다. 구글은 스탠포드 대학원생 두 명이 전 세계 모든 문서를 찾아주겠다는 포부를 품고 세운 검색전문회사이다. 구글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직원의 수가 엄청나다.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선 수익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즈니스의 상황이 이제 많이 변했다. 자신이 정한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환경에 순응할 것인가를 매번 결정해야 한다. 구글의 경우 타협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

시(詩)는 작고 연약한 자들의 도구가 되는 반면 역사(歷史)는 힘센 자들의 이익에 봉사한다. 그래서 나쁜 역사가 반복된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청문회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 사람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수를 외면하거나 적당히 넘기지 않는 것이다. 시인은 일상에 이르는 바람에도 아픔을 느낄 정도로 예민했다.

구글이 성공한 이유는 아무도 정의해 놓지 않은 불확실한 길을 가는 동안 부딪힌 힘든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맞붙어 씨름한 데 있다. 구글은 더 큰 이익을 붙잡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사악해지지 말자’고 다짐했다. 시인 윤동주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기를 다짐한다. 이것이 한 줄이

다. 테레사 수녀에게 한 줄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였다.

동시대인이 된다는 것은 한 번도 살아 본 적이 없는 현재를 함께 사는 것이다. 이 한 줄이 있으면 행동할 때 훨씬 여유롭다. 결정은 더 쉽고 더 빨리 이루어진다.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뼈뿔뿔한 생각도 한 줄로 정리하면 반듯해진다. 나는 여러분이 확신 없이 휘두른 스윙으로 삼진아웃이 되지 않길 바란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신념은 시들고 만다.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뭔지 알면, 삶은 단순해진다. 스스로 무기력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한 줄 문장을 찾길 바란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대개 한 두 가지에 능하다. 이 바쁜 시대에 시를 읽긴 쉽지 않다. 하지만 시는 수백 페이지 연구서로도 설명하기 벅찬 인간의 본질을 단 몇 단어로 꿰뚫어 낸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아 보이지만, 시인은 평범한 일상에서 미래의 한 페이지를 뽑아낸다. 우리의 인생은 중요한 것들에 침묵할 때 끝장나기 시작한다. 어두워 가는 시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시인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원했다.



### 글 | 이정일

동국대 트랜스미디어 세계문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대학에선 영문학을 공부했다. 박사 후 뉴욕주립대 영문과에서 미국 현대시를 연구하였다. 이후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세계문학을 강의하며, J.M. 쿿시, 할레드 호세이니, 이스마일 카다레, 아룬다티 로이, 바오 닌 같은 제3세계 작가들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